

4차 산업기술 발전상 직접 체험 하세요

'BIXPO 2018' 내일 개막...DJ센터서 3일간 열려 IoT·AI 기술 등 디지털 변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모색 끼 발산대회·버스킹 등 다양한 투어·문화 프로그램 준비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장으로서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박람회로 자리잡은 'BIXPO 2018' 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전력은 '2018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이하 빅스포 2018)를 오는 31일부터 3일 동안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장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번 빅스포 행사기간 총 7만 명의 관람객(해외 3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올해 빅스포 주제는 'Energy Transition & Digital Transformation' (에너지 전환 & 디지털 변환)으로, 지난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이어 올해는 4차 산업기술의 발전상을 직접 경험하는 행사로 꾸며진다.

전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사물인터넷

넷(IoT), 인공지능(AI), 에너지 플랫폼 기술 등 디지털 변환에 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빅스포 2018에는 신기술전시회에 282개 기업이 참여하고 국제발명특허대전에 162개 발명품이 출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컨퍼런스 48개 세션과 공식 행사도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신기술을 전시하는 '에너지 전환관'과 '디지털 변환 테마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미래혁신 Start-Up관' 등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우수 전시관도 운영된다. 또 비즈니스 매칭시스템을 통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마켓 엑스포'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방침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기업 간 미팅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적을 확인하는 비즈니스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국내 5개 기업과 미국, 이란, 인도, 세네갈, 멕시코 등 해외 9개 기업 등 EPRI(미국)를 포함한 14개 업체가 참여해 상담을 진행할



지난 2017년 빅스포 신기술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예정이다. 또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해외 45개국 100여명의 전력에너지 분야 CEO·CTO,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전력산업에서 디지털 변환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이밖에 한전은 빅스포 2018이 참가자와 함께하는 상생의 장을 넘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어와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광주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야외전시장에서는 전기자동차, 제로에너지빌딩, 신재생에너지 등을 전시하고 직접 시승할 수 있는 체험기회도 마련했다.

맥주파티와 함께 노래·춤·가요·미술·연기 등 장르 상관없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시민 끼 발산대회, '가면가왕 선발대회'가 열리고 희망·사랑나눔콘서트, 브런치 뮤직박스, 버스킹 페스티벌 등 공연도 다채롭다.

한편, 빅스포 2018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빅스포 홈페이지(www.bixpo.kr)와 'BIXPO 공식 앱' (아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6.05 (-31.10)	↓ 금리(국고채 3년) 1.89 (-0.07)
↓ 코스닥 629.70 (-33.37)	↓ 환율(USD) 1141.40 (-0.50)

광융합산업 일자리 확충 총력

광산업진흥회 인력 교육·양성 프로그램 진행

한국광산업진흥회가 광융합산업인력 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다.

29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진흥회는 광융합산업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인력 교육·양성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 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우선, 진흥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융합산업 인적자원개발협력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수요생들을 대상으로 업계 취업 지원 활동을 펼쳤다.

진흥회는 조선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기반 전자부품 기술 인력 양성과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튜닝·생산 가공 교육을 지난 8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 미니채용 박람회와 광융합산업 로드쇼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흥회는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미니 채용박람회'를 통해 18개 광융합기업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연계,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해결해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유도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진흥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열리는 '2018 광융합산업 로드쇼'에서도 취업 상담 홍보관을 구성, 참여기업과 취업 희망자들을 연결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용한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기업에 맞춤형 인재를 공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심리지수 5개월만에 반등 103.7 기록

광주·전남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이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2.5 포인트 상승한 103.7을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 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2017년 평균치를 나타내는 기준값(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광주·전남 소비자 심리지수가 오른 건 5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99.5를 기록했다.

광주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9 포인트 오른 102.6, 전남은 2.8 포인트 오른 105.0이었다.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지난달부터 조사 대상 표본가구수(600가구)를 변경했는데, 올 초까지 심리지수가 110선을 넘었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두고 경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MOU체결



'지역금융 활성화 지방은행 MOU' 체결 송중욱 광주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2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중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집부자' 10명 주택 1917채 소유

광주지역 10명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만 191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자체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6963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모두 3만1914채로 집계됐다.

전남은 5114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9091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10명의 '집부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917채에 달했다.

서구에 거주하는 4명의 임대사업자가 887채를, 북구에 사는 3명이 458채를 소

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각각 1명의 임대사업자가 244채(광산구), 223채(남구), 105채(동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의 60대 임대사업자가 336채를 등록,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245채), 무안(198채), 순천(106채), 영암(78채), 장성(70채), 여수(60채) 등으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구 금고 선정 잡음 법정싸움 가나

농협, 광주지법에 계약체결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잡음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29일 광산구 금고 선정 관련 '계약체결대상자로의 지위 확인 및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광산구가 지난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 위원회를 열어 KB국민은행을 1급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데 따른 것으로, 농협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광산구 금고를 국민은행에 내주게 됐다.

농협 측은 심의위원 선정,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와 금고 관리업무 수행능력 평가 등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

광산구 금고 선정 심의는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2점)·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2점)·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점)·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9점) 등 19개 평가항목에 합산 100점을 배정했다.

19개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기관 안정성을 판단하는 4가지 평가항목은 올해 기준지표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협 측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측은 "농협에서 제출한 지역사회 기여 금액은 17억4500만원이었지만 구청 측이 영농지원 사업 15억8000만원을 차감하면서 경쟁 은행이 1위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광산구는 이와관련,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2015년 심의 때도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농민에게 지원하며 영농지원 사업은 실적에서 제외했다"며 "영농지원이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포함하는지 심의위원회에 판단해달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